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토요일 어린이미사 없음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TEL : 02-835-1813
TEL : 02-835-1812
TEL : 02-835-1810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추후 공지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잠가개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길 10 (대림1동 919-38) / 홈페이지 <http://daerimcc.or.kr>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예비자 특별반 모집(2021년 7월 세레반)

코로나19로 번번이 연기되었던 예비자교리를 이번에는 특별반을 신설하여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하상현 신부님, 도미니카 수녀님과 함께 3개월 교리로 진행하오니 주변 이웃을 많이 초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중지시 비대면 교리 포함)

- 모집기간: 4월 11일(주일)까지
- 환영미사: 4월 11일(주일) 교중미사
- 교리일정: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8시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

매 미사(3/20~3/31) 후 각자 성찰한 고해성사 용지를 사제에게 제출한 뒤 개별적으로 사죄경과 안수를 받고 합동보속을 실천합니다.

✦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

다음 주일인 3월 28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희생, 특별히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2차헌금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판공성사표 제출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은 고해소에 비치된 성사표함에 넣거나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타본당 또는 성지 등에서 고해성사를 보신 경우에도 성사표를 제출 바랍니다.)
성당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 사무실 업무시간

요일	업무 시간
월	휴무
화·목·토	09:00 ~ 20:00
수·금	09:00 ~ 18:00
주일	06:30 ~ 20:00

※ 점심시간 12:00~13:00 (주일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합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3월8일~3월14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반
박은실	세실리아	대림동 e편한세상	1-4
이승대	세례자요한	신대방동 우정아파트	18-4
김정은	테레사	신대방동 600번지	19-1

✦ 성당청소 : 3월 22일(월) 20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3월8일~3월14일)

주일헌금	4,653,100	-	-
교무금	9,035,000	성소후원금	225,000
건축헌금	365,000	군중후원금	60,000
감사헌금	오홍석 안셀모	20만원	익명 10만원
	이광연 세레나	10만원	익명 10만원
	최호영 스테파노	10만원	익명 5만원
	박정규 경환프란치스코	10만원	익명 5만원
	김태연 토마스	5만원	
	김종석 요셉	3만원	
	최한숙 베로니카	2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묵상시]

절제와 향연 (Fasting and Feasting)

윌리엄 아더 워드

다른 이들을 심판하기를 절제하되,
그들 안에 머무는 주님을 맞이하세요.

타인과 다른 점들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일치하는 삶을 사세요.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환한 빛 속에서 기뻐하세요.

세상을 더럽히는 말을 삼가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언어를 구사하세요.

불평불만을 억제하고,
감사하는 맘으로 사세요.

걱정은 삼가고,
주님께 맡기세요.

지속되는 스트레스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끊임없는 기도로 극복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뒤로 하고,
용기를 주는 기도의 삶을 사세요.

자비하신 주님,
이 절제와 향연이 공존하는 사순절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저희가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